

양성 평등한 주거생활에 대한 새로운 시각과 선택

이 경 희 (중앙대학교 주거학과 교수)

1. 서언

“만물을 위한 시간과 장소가 존재 한다”는 상식적인 개념은 공간과 시간에 사회적인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사회적인 질서를 유지해 가는 일련의 규범을 만들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주거공간은 일단 건축이 되면 단순히 우리자신의 요구, 필요, 욕망에 의해서가 아니라 정확하게 읽고 해석해야하는 교과서와 같은 성질을 띠게 되며 이 공간은 우리들 각자에게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보여주는 무대가 된다.

실제로 주거공간은 그 속에 상당한 질서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주거공간의 질서는 공간적인 질서, 시간적인 질서, 그리고 사회문화적인 질서 등에서 나타난다. 주거공간은 거주자들이 타인과 가족구성원들 사이의 접근과 행동을 확실히 통제할 수 있게 해주는 물리적이고 상징적인 경계를 가진 분리된 영역이다. 이 주거공간 속에서 사람들은 개인공간이나 영역을 구축하고 개인화하며 이를 통하여 공간사용의 질서를 만든다.

주거공간에서 거주자들이 보여주는 시간적 질서는 대부분 반복되는 주기와 개인의 일상적인 행동들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생긴 공간의 형태만을 보는 외부사람들에게 보이지 않는다. 더욱이 이러한 시간적인 질서는 내부에 사는 사람에게는 너무 친숙해져 있어서 당연하게 여겨지므로 스스로 인식하지 못하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질서를 이해하기에는 어려움이 많다.

한편 사회문화적인 질서는 사람들의 믿음과 관습에 의해 주거생활에서 선택적인 질서체계를 나타내고 형식적인 표현의 범위를 형성한다. 예를 들어 주거공간에서 식사를 하는 행동을 살펴보자. 식사를 누가 준비하고 언제 어디에서 먹는지, 어느 자리에 앉아야 하는지, 누가 처음 먹는지, 누구와 같이 먹는지, 또는 혼자 먹는지, 누가 먹은 후에 치우는지는 사회 문화적인 차이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주거 공간 내에서의 이러한 활동과 경험들은 사람들의 의식형성에 기반을 제공하며 이는 문화적인 특성으로 내재화 된다.

대부분 주거생활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질서는 보수적인 성격을 띠며 이러한 질서를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그러한 질서를 확산시킨다. 따라서 사람들의 지각, 사고, 활동의 기본적인 구성이 주거로 구체화되며 그 주거는 남성과 여성에게 최초의 학습과정의 장소가 된다. 결국 이러한 주거공간에서 구체화되고 강화되는 사회적 위계, 불평등, 그리고 전통적인 성역할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기는 어렵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 우리의 주거생활을 새로운 관점에서 다시 살펴보면서 다음과 같은 질문으로부터 시작하고자 한다. 주거공간에서 남성과 여성이 함께 살고 있지만 남성과 여성이 경험하는 생활은 과연 같은 생활이라 볼 수 있는가? 여성들이 경험하는 주거생활의 실태는 어떠하며 여성들은 왜 이러한 생활을 해야 하는지 알고 있는가? 고 남성과 여성이 함께 더불어 살기에 바람직한 주거생활은 과연 어떠한 형태가 되어야 할 것인가?

본 연구는 이상의 문제들을 살펴보기 위하여 기존의 문헌자료와 함께 최근에 실시한 9건의 면접 사례를 분석자료로 사용하였다.¹⁾

2. 주거는 여성 생활의 본거지인가?

여성들의 장소는 집이라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굳게 믿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도 반수 정도의 여성들은 집 밖에서 남성들과 마찬가지로 소득을 위한 일을 하고 있지만 아직도 이러한 믿음에는 큰 변화가 없다.

여성과 남성의 세계를 나누는 가장 근본적인 차이는 가정과 공적사회의 분리로, 전통적인 여성은 가정에, 남성은 공적인 사회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믿음에 있다. 생리학자들이나 일련의 심리학자들은 여성들이 집에 머무르는 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이라 믿지만 많은 사회과학자들은 여성들이 그들에게 적합한 장소를 집이라고 믿도록 교묘하고 집중적으로 훈련받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B.

1) 심층 면접은 2003년 3월과 4월에 주부를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수집된 사례의 특성들은 다음과 같다.

사례1. 47세, 대졸, 2남 전업주부, 자가 거주, 가구월소득(400만원), 자산(4억원)

사례2. 42세, 고졸, 2남, 전업주부, 자가 거주, 가구 월소득(200만원), 자산1억원)

사례3. 40세, 대졸, 1남1녀, 전업주부, 전셋집 거주, 가구 월소득(300만원), 자산(1억원)

사례4. 35세, 대졸 자녀수 2 취업, 전셋집 거주,

사례5. 59세, 국졸, 2남, 취업, 자가거주, 가구 월소득(150만원), 자산(6천만원)

사례6. 30세, 대졸, 자녀 무, 취업, 전셋집 거주, 가구 월소득(200만원), 자산(5천만원)

사례7. 44세, 대학원졸, 2녀, 취업, 자가 거주, 가구 월소득(600만원), 자산(4억원)

사례8. 42세, 전문대졸, 1녀, 취업, 자가거주, 가구 월소득(600만원), 자산(4억 5천만원)

사례9. 43세, 고졸, 1남 2녀, 자영업, 자가거주, 가구 월소득(300만원), 자산(1억원)

Loyd, 1982).

우선 우리사회에서 여성과 남성이 집의 의미에 대해 나타내는 차이를 보면 여성은 집을 그들 자신의 정체성의 구성요소나 표현 정도로 생각하는 반면 남성은 집의 의미를 단순한 물리적인 장소로 생각하며, 현재 사는 집보다도 어린 시절의 집을 더 많이 연상하는 경향이다. 이러한 발견은 집에 대한 감정적인 애착심리가 남성에게는 그들이 성인이 되면서부터는 희박해지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에서 가능하다. 집에 대해 가지는 개별적인 개념을 살펴보면 여성은 집을 소속의 감정이나 나의 한 부분, 피난처, 내가 안전하고 편안한 곳, 나의 세상의 중심 등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남성은 집의 의미를 나에게 속한 곳, 내 것, 건축 디자인, 방, 어린시절, 부모님이 계신 곳, 여가시간, 침대 등을 연상시킨다고 답한다고 하였다.(Saegert, 1980) 여성과 남성이 집의 의미를 표현하기 위해 선택한 어휘들을 보면 다시 한 번 현재 살고 있는 집에 대한 여성의 심리적인 투자가 남성보다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남성에게는 어린시절의 집이나 소유권, 물리적 묘사가 더욱 현저함을 나타낸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집이란 누구에게나 대부분 긍정적인 연상을 불러일으키지만 여성은 집을 더 감정적으로 중요한 그들 생활의 측면으로 생각하는 반면, 남성은 더 중립적인 물리적인 의미와 어린시절의 연상을 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본 연구에서 심층면접에 참여한 응답자들의 집에 대한 인식은 “생활의 전부”, “가족생활의 중심”, “가족의 안식처”, “행복한 곳”, “안락한 곳” 등으로 표현되었으며 반면 남자들은 “침터”, “휴식처”, “부동산”, “재산” 등으로 인식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맞벌이를 하는 부부의 경우에는 집을 “쉬는 곳”이라고 함께 생각하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어 일하는 여성의 경우에는 전업주부와는 다른 인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과 여성의 주거공간에 대한 인식의 차이에 대한 사회화는 유아기나 더 이르게는 태아일 때 부터 부모들이 남아나 여아를 다르게 대함으로부터 시작된다. 이러한 사회화는 성인이 될 때 까지 지속되며 그것은 정보매체들에 의해 더욱 강화된다. 부모들은 딸을 기르는데 더욱 엄격하게 하며 딸들은 더욱 집 가까이에 두고 더 많은 가사일을 가르친다. 아이들은 성장하며 성의 차이는 더욱 벌어지고 사용하는 언어, 옷을 입는 방법, 가지고 노는 장난감 등 이러한 차이는 더욱 분명해진다. 본 연구자가 실시한 설문 조사에서도 여대생들은 일상생활을 통하여 남자형제들과는 다른 엄격한 귀가시간 등의 행동지침이 있었음을 보고하였다.

교육을 받는 시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우리나라의 많은 교과서나 잡지, 텔레비전, 신문과 라디오는 여성들의 진정한 성취가 주거를 근거지로 하는 가정에 있다는 메시지를 끊임없이 전한다. 주택관련 광고에 출현하는 CF 배우들은 대부분 여성들이며 이러한 광고는 여성들의 꿈과 이상이 집에 있음을 전한다. 여성들의 사적인 영역에 대한 강화는 여성들에게 권력이나 지위를 제공하지 않고 있으며 집에 머무르는 여성의 지위는 사회에서 상대적으로 낮으며 그들을 공적인 생활로부터

격리시켰다. 주택은 이러한 의미에서 여성의 사적인 영역의 보루이며 대부분의 여성들은 이러한 현상에 대해 자연스럽게 생각하는 경향이 아직도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3. 개인주의적 공간사용의 특성과 성별 공간사용

오늘날의 우리의 가정생활을 보면 개인주의적인 특성이 더욱 보편화 되고 있으며 이러한 개인주의적 가치의 특성은 산업화가 이루어지면서 선진국에서 뿐 아니라 개발도상국의 일상생활에서도 보편적인 생활양식에 되어가고 있다.

이러한 개인주의적 사회 속에서 나타나는 주거의 특성을 보면 첫째, 대부분의 주택은 독립된 단위로 구성되어 핵가족의 거주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밖에서 일하는 남편과 집에 있는 아내의 가족을 위하여 구성되고 있다. 비록 주택 자체의 형태가 집합주택의 구조를 나타내고 있지만 이러한 집합주택들도 단지 통로만이 공유되며 수직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이러한 독립적인 주택의 구조는 가족생활의 사적인 운영을 강화하고 가족끼리의 의존성을 바탕으로 모든 생활이 이루어지게 되므로 주부들의 생활은 더욱 부담이 커지게 된다.

집합주택의 공간에서도 공동체적인 공간사용의 예는 보기 힘들다. 서구에서 볼 수 있는 공동주택의 공유공간 사용이나 적극적인 공동의 노동은 찾아보기 힘들며 따라서 이웃과의 관계도 정보를 교환하는 정도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보통이며 가사 일을 함께 처리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서구의 협동주택에 관하여 설명하고 취사나 육아를 공동으로 하는 공동주택이 있다면 이러한 공동주택에 입주하여 살 의사가 있는가를 질문하였을 때 면접에 참여한 응답자들은 한 사례(사례 6)를 제외하고는 그러한 집에 사는 것에 대하여 가능하지 않다고 응답하거나 입주를 원하지 않는다고 답하였다. 결국 우리사회에서 취사나 육아는 사적인 노동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이를 사회화 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러나 집합주택은 관리의 편리함이나 방법, 그리고 주변에 구매시설이나 자녀들의 사적인 교육기관의 근접성 때문에 이에 대한 선호는 여성들에게 높게 나타나고 있다.

둘째, 주거공간은 그 내부에서 공적이며 사적인 공간의 구분이 생기며 이러한 구분 속에는 복잡한 사용기준들을 나타내고 있다.

주거공간에서 가족구성원 각자가 어떻게 개인실을 사용하고 있는가를 살펴보면 부부는 자신을 위한 각각의 방이 필요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된다. 따라서 부부의 사적인 생활이 최소화 되고 있다. 그러나 가족구성원 중에서 자녀들은 독립적인 개인실을 가지고 있는 비율이 높으며 이러한 자녀의 개인실의 확보는 다른 공간의 배분에서 보다 우선적이라 할 수 있다. 자녀의 성장에 따라 자녀들을

위한 개인실은 우선 배분해야 하는 공간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공간의 여유가 있을 경우 남편의 서재공간이 배분되고 주부의 공간은 독립적으로 확보하기 힘들다. 그러나 조사연구에서 70%의 주부들은 개인실이 필요하다고 답하였고 미혼의 딸은 약 90%정도가 필요하다고 답하였으며 남편의 경우도 80%정도는 개인실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즉 주거공간에서 주부나 남편의 개인실이 없는 것은 그들이 이러한 방을 원하지 않았다고보다는 절대적인 방 수의 제한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주부들이 주거공간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는 장소는 거실이나 부엌으로 이러한 공간에서 주부들은 시간의 제약을 받으며 바쁜 생활을 한다고 느끼고 있다. 본 조사에서 주부들은 주거공간에서 매우 바쁘게 보낸다는 비율이 49%정도가 되며 반면에 미혼의 딸은 13%만이 그리고 남편은 14%만이 바쁜 생활로 인식하고 있었다. 실제로 주부들은 스스로 주거공간안의 대부분의 장소를 통제하고 있다고 생각하기도 하나 실제로는 스스로 창의적인 일을 할 공간이 있다고 답한 주부는 35%정도에 불과하다(이경희, 1996)²⁾.

셋째, 개인주의 사회에서 지위의 표현은 자신의 정체감을 알리는 대상물에 의존하는데 특히 주택은 사적인 생활을 외부인에 공개하는 장소이므로 개인의 정체감을 알리는 대상물로서 대단히 중요하다. 집단주의적 사회 속에서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던 주거는 개인주의적 사회 속에서 가족에게 중요한 장소가 될 뿐 아니라 이를 마련하고 관리하고 잘 꾸미려는 노력도 더욱 증대된다는 것이다.

주거공간은 소비재를 보호하고 담아둘 수 있는 용기이며 동시에 전시용 진열장이 되기도 한다. 주거의 디자인은 서구적인 형태를 받아들이고 서구스타일의 가구를 그 속에 배치하는 일이 일반화되고 있다. 본 연구자가 실시한 조사연구에서도 주거공간이 사회적인 지위를 나타내므로 남 보기에 좋아야한다고 생각하는 주부는 75%에 달하고 있으며 미혼의 딸들 중 67%, 남편들 중에는 62%가 이러한 생각에 동의하고 있음이 밝혀졌다. 즉 우리사회에서 주거는 사회적인 위세를 나타내는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사회적으로 인정받기 위한 하나의 전략으로 이를 잘 꾸미고 관리하는데 많은 자원과 시간을 소비하게 되며 이를 위한 노력은 주로 여성들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4. 가사노동의 장소로서의 주거

여성과 남성의 성적 노동 분담은 주거공간에서 구체화된다. 여성들에게 있어서 주거공간과 가족개개인은 가사노동이 이루어지는 대상이며 주거공간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다양한 가사노동들은

2) 본 연구자가 여대생 120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로 여대생 자신과 부모의 의견을 묻는 3부문으로 구성된 질문지를 사용하였다. 연구의 내용은 "주거문화와 여성", 한국여성학 12권 2호(1996) 참조

주부가 주된 책임을 지고 수행하고 있다. 취업여성의 경우 직장에서의 일과 가사노동을 모두 제한된 시간 내에 처리해야 하므로 더욱 어려움이 많다. 따라서 주거공간에서 가사노동을 줄이고 자녀 양육을 쉽게 하고자 하는 노력은 여성들의 관심사이기도 하다.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주부들은 거의 대부분의 가사일의 주된 책임을 지고 맡아서 하고 있으며 주택 수리나 청소, 자동차의 세차와 관리에 관한 일만이 남편이 하는 일로 보고 되었다. 소수의 경우는 남편들도 음식 만드는 일이나 설거지 등을 돕기도 하지만 한 주거공간에 동거하는 미혼의 딸도 다양한 가사노동 중에서 설거지나 청소를 하는데 보조적인 역할만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실험실과 같은 깨끗한 부엌은 여성들이 비싼 값을 치르고 기꺼이 개조하는 공간이기도 하며 많은 여성들이 깨어있는 동안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장소이기도 하다. 주거공간에서 합리적인 부엌구조의 개선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으나 이를 통하여 여성들의 가사노동시간은 줄어들지 않았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다(문숙재와 채옥희, 1986). 결국 공간의 효율성의 증가는 여성들에게 더욱 높은 표준을 세우도록 하게 하므로 노동시간의 절감에는 큰 기능을 못한다는 것이다. 가전기들도 일의 표준을 높여주고 일의 내용은 변화시키지만 일 자체를 감소시키지는 못하였다. 주거공간을 깨끗이 유지하고 정돈된 상태로 보존하려는 노력은 여성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 조사연구에서 주부들 중 47%는 주거공간이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지 않으면 죄의식을 느낀다고 대답하였다. (이경희, 1996)

오늘날 주거의 과학적 관리에 대한 관심이 커지며 효율적인 주택에 대한 목표는 더욱 구체화되어 기능적인 건축이 강조되고 있다. 홀을 중심으로 하는 개방된 평면계획이 도입되어 주택공간에 변화를 일으켰으며, 주거공간에서 공적인 공간은 통합되고 개인적인 공간만 분리되어 사적공간으로 남게 되었다. 이러한 홀 중심의 개방된 주택공간의 유형은 주택공간에서도 가장 보편적으로 볼 수 있는 유형이 되고 있다. 이와 같은 개방공간은 동선의 효율성과 가족들의 가사노동참여에 대한 기대에 의해 더욱 선호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건축공간의 개방성은 여성들의 가사노동의 기본적인 내용에는 큰 변화를 주지 못하고 단지 모든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해야 한다는 점과 부엌을 끊임없이 치워야 한다는 점이 강조된다. 또한 이러한 개방적인 부엌은 주부의 프라이버시가 제거되어 스스로 하고 싶은 시간에 일을 할 수 없게 한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기도 한다.(B. Lovd, 1982). 이러한 비평에도 불구하고 개방적인 평면은 새로운 지위의 상징을 원하는 가족들의 요구를 충족시키므로 최근의 많은 주거 공간의 계획에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렇다면 실제로 가족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부엌공간의 디자인은 어떠한 형태가 되어야 할까. 심층면접을 하는 과정에서 주부들이 제시한 개선 안은 우선 부엌 공간이 현재보다 규모가 컸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많았고 부엌의 작업대를 아일랜드형으로 만들어 식구

들이 부업일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한편 물리적인 구조가 사람들의 행동을 바꿀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응답자들이 많았으며 기본적인 의식구조의 개혁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5. 주거의 접근성과 여성

일반적으로 공간적인 배열, 즉 어떠한 공간이 취업 장소나 정보에 근접해 있는가는 여성과 남성의 지위에 영향을 미치며 특히 여성의 격리된 공간성은 성차를 강화한다고 본다(Saphine, 1992). 주거를 근거지로 하는 여성들에게 있어서 취업 장소나 일상생활을 지지해주는 서비스, 그리고 더 나아가 정보에 대한 접근은 여성들의 일상생활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들이다.

주거지의 위치선정은 여성들의 행동반경을 결정한다. 여성들이 주거지를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선택 이유는 우선 자녀 학교의 위치였다. 그 다음이 남편의 직장 위치이며 본인의 편의시설 등은 그 이후에 고려되는 사항들이었다. 그러나 최근의 조사에서 직장을 가진 여성들의 경우 여성들의 직장의 위치는 중요한 고려사항이라고 응답한 여성들의 수가 늘고 있다. 그러나 자녀의 교육에 대한 온 가족의 지원은 우리의 문화권에서 나타나는 독특한 것으로 자녀 교육을 위한 공간적인 배려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취업한 여성의 경우에도 그들은 일상생활에서 시간적 압박을 받으면서도 자녀의 학교에의 접근을 더욱 중요시 하고 있다.

한편 여성들은 남성보다 교통수단 자원에 접근이 어렵다. 여성들의 취업이 증가하면서 여러 가지 일을 복합적으로 하는 여성들에게 이러한 교통수단의 제한적인 요소들은 더욱 여성들의 일을 어렵게 한다. 일을 하면서 최상의 선택을 하는 유연한 수단과 이러한 일들을 최소화하는 것이 가능한 사람은 여성보다는 남성이다. 남성들은 대부분 차를 소유하고 있으며 그들의 차에 일차적으로 접근하고 있다. 취업주부들은 출퇴근에 있어서 이러한 교통수단의 이용에 있어서 제한을 받고 있다는 것 이외에도 다양한 측면에서 매우 스트레스를 받는다. 질적인 측면에 있어서 여성들의 일상생활의 구조는 남성과는 매우 다르다. 취업주부는 집안일과 아이양육을 우선적으로 책임을 지게 되므로 아침에 모든 가족을 깨우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여 직장에서 일하는 장시간동안 긴장 속에서 일을 하게 된다.

한편 우리사회는 정보사회로 진입하고 있다. 여기에서 정보사회란 지식과 정보가 상품이 되는 사회, 그리고 정보의 유통과 가공, 처리가 중요한 산업이 되는 사회이다. 이러한 사회에서 정보에 대한 접근은 필수적이며 이것은 사회적인 권력과 관련이 있다. 따라서 여성들이 정보에 접근 할 수 있는 기회와 능력을 갖추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이러한 기회는 주거 안에서도 제한되어 있

다. 주택 안에서 인터넷을 할 수 있는 컴퓨터는 주로 자녀나 남편이 사용하기에 편리한 장소에 두고 있으며 주부들은 이러한 기회에서 항상 이차적인 사용자로 여겨지고 있다.

6. 주거공간의 소유와 통제

주택을 소유하고 그 주택이 한 개인의 재산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주택을 소유한다는 것을 어떤 이미지나 그림 또는 가시적인 특징으로 이를 설명하기는 힘들다. 등기권리증을 가지고 있다는 것, 그것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는 것, 다른 형태로 고치거나 새로 지을 수도 있다는 것, 팔 수 있다는 것 등이 주택을 소유함으로써 향유할 수 있는 사항들이지만 이러한 사항들 자체가 주택을 소유한다는 것을 총체적으로 나타내지는 못한다.

주택을 소유한다는 것은 우선 이러한 소유를 통하여 어떤 이익을 이끌어 내리라고 하는 기대를 의미한다. 특히 이러한 주택은 자유시장경제체제 속에서 하나의 상품으로 이는 화폐로 전환될 수 있다. 화폐의 소유가 그 소유자에게 엄청난 사회적 권력을 부여한다는 것은 설명할 필요가 없다. 이러한 기대는 법에 의해 보장을 받는다. 즉 주택을 소유함으로써 갖게 되는 재산권은 배타적인 개인의 권리로 주택을 사용하고 이득을 취할 때 타인을 배재할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받음을 의미한다. 주택을 소유하여 개인의 재산이 된다 함은 주택을 사용하거나 이를 통하여 이익을 취하는 것에 대한 강제력을 지닌 요구라는 의미에서 권리를 가지는 것이며 이러한 소유를 단순히 잠정적인 점유와 구분하는 것은 이러한 재산권이 하나의 요구이고 이 요구가 법에 의하여 강제될 것이라는 데 있다.

여기에서 우리는 강제력을 수반하는 요구라는 재산권의 일반적인 정의가 가지는 논리적 함의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이러한 재산권이란 사람들 사이의 정치적인 관계라는 점이다. 강제력을 수반하는 요구라는 재산권의 개념 속에는 이를 강제할 어떠한 조직이 있어야 가능하다. 우리의 사회에서 이러한 강제주체는 사회 전체, 국가 또는 법이라 볼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주택소유를 통한 재산권은 사람들 사이의 정치적인 관계이다. 즉 주어진 재산권은 타인에 대한 배타적인 권리로서 이는 가족 내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대부분의 남성들이 주택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 남성과 여성의 정치적인 문제이기도 하다.

우리나라의 재산법은 사유재산제도에 기초를 두고 있으므로 가족의 가장 큰 재산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주택도 누구라도 자기의 이름으로 취득할 수 있고 이를 처분할 수도 있다. 이러한 내용을 추상적으로 보면 주택소유의 기회는 남녀 모두에게 동등하게 주어져 있다. 그러나 실제로 여성이 주택을 소유할 수 있는 가능성은 남성에 비하여 매우 낮다.

주택의 마련은 가족이 형성되는 결혼과 함께 이루어진다. 우리나라에서는 결혼할 때에 주택의 마련은 남자들의 일로 인식되고 있으며 주택의 최초의 소유권은 이렇게 남자에게 유리하게 시작된다. d연구자의 조사연구에서도 결혼할 때 집을 남자가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주부의 66%, 남편의 경우는 69%, 미혼의 딸은 41%로 나타나 아직까지 40대와 50대 이상의 연령층은 결혼 시 남자가 주택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이경희, 1996). 대부분의 경우 실제로 결혼 시에 여성들도 많은 혼수비용이 들지만 이러한 비용은 대부분 예물이나 내구성 소비재를 위한 것으로 재산의 형성, 특히 주택의 소유권으로부터 소외된다.

2000년도 결혼한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리서치 앤드 리서치에서 조사한 내용을 살펴보면 결혼을 위한 비용은 의례(ritual)비용과 신혼부부의 살림준비 비용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를 살펴보면 신혼 살림 준비 비용이 73.0%를 차지했고, 결혼식을 전후한 전체적인 의례관련 비용이 27.0%를 차지하였다³⁾. 총 결혼비용에서 신혼집 마련비용이 59.0%를 차지해 가장 비율이 높았으며 이때 지불한 주택자금의 90 % 이상은 신랑이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세부항목별 결혼비용 구조 (단위 : 만원, %)

세부항		평균비용	항목비율	신랑 부담액	신부 부담액
신혼 살림 준비비용	주택자금	4629.2	59.0	4243.6(91.7%)	385.6(8.3%)
	살림살이	1098.7	14.0	125.4(11.4%)	973.4(88.6%)
의식(ritual) 관련비용	약혼식	35.4	0.5	12.7(39.9%)	22.7(64.1%)
	예 단	578.6	7.4	166.5(28.8%)	412.1(71.2%)
	예 물	500.8	6.4	310.5(62.0%)	190.3(38.0%)
	함들이	63.8	0.8	18.9(29.6%)	44.9(70.4%)
	결혼식	623.4	7.9	300.6(48.2%)	316.5(50.8%)
	피로연	43.4	0.6	30.1(69.4%)	13.3(30.6%)
	신혼여	272.2	3.5	175.7(64.5%)	96.5(35.5%)
합 계		7844.7	100.0	5384.0(68.6%)	2455.3(31.4%)

결혼한 이후에도 대부분의 여성들은 화폐소득을 위한 경제활동에서 소외되어 있기 때문에 스스로의 노력만으로 독자적인 자산을 형성하기가 힘들다. 여성이 취업을 하여 화폐소득이 있다고 해도 주택을 구입할 때에 대부분 남성의 명의로 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이며 연구자의 연구의 표본 중에서도 주택의 소유가 남편의 명의로 되어 있는 예가 83%정도 차지하고 있었다(이경희, 1996). 사례연구에서도 하나의 사례(사례8)를 제외하고 주택의 소유권은 남편에게 있었으며 이들 대부분은

3) 리서치 앤드 리서치에서 2000년 12월에 전국 5대도시의 559 쌍의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결혼 비용 지출에 관한 조사내용을 참조함

결혼 할 당시 주로 남편이 주택을 마련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고 보고하고 있다. 주택의 소유권이 부인에게 있는 사례8의 경우에는 결혼 할 당시 이미 주택은 부인의 소유였으며 남편은 그 주택의 마련에 아무런 기여를 하지 않았다고 설명하였다. 기회가 되면 주택의 소유를 공동의 명의로 바꿀 의사가 있는지를 질문한 결과 거의 대부분의 사례들은 그러한 의사가 있다고 답하였으며 남편들도 공동명의로 하자고 하면 동의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다. 그러나 나이가 가장 많은 사례5는 그런 문제를 생각해 본 적도 없다고 답하였다. 부인의 소유로 되어있는 사례8의 경우에는 남편과 공동의 명의로 바꿀 의사가 없다고 하였으며 이는 결혼 당시 최초의 주택구입에 누가 얼마나 기여했는가 주택의 소유권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나타낸다.

최근 통계청의 자료에 의하면 전체 남성가구주 중에는 62.3%가 자가를 소유하고 있음에 비추어 여성 가구주의 경우에는 경제적인 지위가 남성보다 상대적으로 낮으므로 전체 여성가구주 중 48%만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52%는 무주택가구이며 이는 남성 가구주 보다 매우 낮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표 2〉 가구주의 성별 주택소유유형(%)

성별/주택소유유형	계	주택소유가구수	주택소유 (자기집 거주)	주택소유 (남의 집 거주)	무주택가구
남자	100.0	62.3	56.7	5.6	37.7
여자	100.0	48.0	44.6	3.4	52.0

통계표 주석: 가구주 이외 가구원의 주택소유여부는 포함되지 않음,
출처:통계청 자료 2001

주택의 구매의사결정은 남편이 하는 경우와 부부가 공동으로 의논하여 하는 경우, 그리고 부인이 혼자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부부가 공동으로 결정을 한다고 하였으며 주택에 관한 정보의 획득이나 탐색활동은 주로 부인이 하는 경우가 많았다.

여성들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주거문제를 연구하는 인적자원은 필수적이거나 이제까지 주택디자인의 성적인 노동 분담도 하나의문제로 제기된다. 주택의 외부는 남성건축가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여성들은 주로 주어진 실내를 디자인하는 일을 맡아 왔다. 따라서 주거생활을 규정하는 도시계획이나 주택의 공간구분은 남성에 의해 결정되고 있다. 이 부문에 대한 여성의 참여는 극히 낮으며 모든 전문직 중에서 건축부문은 여성의 비율이 낮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앞으로 주거의 디자인 뿐 아니라 주거문제를 연구하는 분야의 여성참여는 여성들의 공간적 체험을 더 잘 이해하고 문제해결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촉진되어야 할 것이다.

5. 나가는 말

주거생활은 우리들의 활동범위와 생활의 배경이 되는 사회적인 제도와 역사, 생활하는 물리적 환경조건들 속에서 개인의 역할과 사회적인 관계 등의 복잡한 맥락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즉 여성의 주거생활의 특성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와 다양한 책임들과 분리하여 독립된 존재로 분리될 수 없다. 따라서 물리적 환경의 변화 속에서도 여성들의 주거생활은 다른 사람들에 대한 의무가 갖는 중요성과 그 심각함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의존성에 있다. 따라서 여성들의 주거생활은 남성에 비하여 그 영역이 더욱 침투가 가능하며 한 행동영역에서 다른 행동영역으로 분리시키기 가 힘들다. 이러한 특성은 여성들에게 더욱 스트레스를 주게 된다.

여성들의 주거생활 개선 운동은 사실상 공간을 지배하는 것 보다는 장소 안에서 장소를 조직하고 지배하는 데에 보다 익숙하다.

앞으로의 사회에서 변화는 필연적으로 경험하게 될 것이며 물리적 환경의 변화도 포함된다. 급격하고 필요한 사회적인 변화의 가능성에 반하여 성역할이나 여성들의 책임들은 고정적이고 엄격하며 사회적인 정책도 새로운 가족들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 여성들은 결국 그들의 사회와 문화, 정치 경제적인 제도, 그리고 물리적인 환경과 분리되어 생활할 수 없다는 점은 명백하고 그러므로 이러한 주거생활에서 나타나는 문제들이 거시적인 사회의 제도의 중요한 변화 없이는 접근이 불가능하다는 점도 분명하다. 결국 주거환경의 변화와 함께 체계적인 변화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여성들의 주거생활에서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야 할 것인가는 실천적이며 전략적인(practical and strategic)두가지 측면에서 제시될 수 있다.

실천적인 측면에서는 다양한 가족구성의 유형에도 적합하도록 다양한 기능을 충족시킬 수 있는 방의 설정, 관리하기 편리한 재료의 사용, 지역시설에 편리한 접근과 이웃의 상호지원이 가능한 계획, 개인의 단독주택의 집합을 넘어서는 넓은 관점의 공동체적인 주거계획 등이 그러한 예이다. 이러한 노력들이 여성들의 생활에서 실질적인 개선에 기여하는 것은 사실이나 창의적이며 혁신적인 생활환경을 위한 새로운 생활환경을 재조직하기보다는 기존의 상황을 일차적으로 받아들이는데 이러한 변화들이 기여하기도 한다.

전략적인 문제들은 법 앞에 평등, 재산권의 확보, 가정에서의 성역할 분담의 변화, 의사결정과정에서의 여성들의 참여 등으로 사회적인 제도 속에 각인된 여성들의 권력과 관련이 있다. 이러한 전략적인 관심들은 매일의 실천적인 생존문제를 넘어서 거시적이며 사회적인 변화를 요구하므로 사회적, 문화적, 정치적인 체계의 저항 때문에 제도화하기가 힘들다.

인간과 환경에 관한 연구 분야에서 유토피안적인 이상향의 계획들이나 그에 대한 믿음과 신념은

사람들이 살기에 더욱 좋은 곳으로 만드는데 기여하고 인간의 생활을 억압하는 제도와 장소를 변화시키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사회적이며 제도적인 측면의 이러한 방향 제시는 발전적인 방향으로 이끌 것이며 생활에서 실천적이고 전략적인 측면의 변화를 의식적이건 무의식적이건 끌어내게 된다.

주거생활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결국 매일의 생활에서 경험하는 실천적인 문제들을 사회적이며 제도적인 문제로 부각시켜 이러한 문제들이 성차별적인 문제일 뿐 아니라 남성 그리고 여성 모두에게 관련된 문제임을 알리는 것이다. 따라서 전략적으로 매일의 생활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문제들이 사실상 사회적인 제도, 남성과 여성, 아이들과 동시에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강조해야 한다.

여성들은 주거생활을 경험하면서 지속적으로 근본적인 질문들을 할 필요가 있다. 즉 우리는 어떻게 주거공간에서 일상생활을 경험하며 그것에 대하여 어떻게 아는가? 그리고 그것에 관하여 어떻게 체계적으로 배우는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변화시키고자 하는가? 그리고 외부적인 압력이나 권력과의 관계는 어떠한가? 즉 안다는 것은 모든 문제해결의 시작이다.

■ 참고문헌

김대년의 4인(1995), 여성의 삶과 공간환경, 서울, 한울아카데미

문영미(1996), 새벽의 집, 서울, 도서출판보리

손세관(1993), 도시주거형성의 역사, 서울, 열화당

신혜경(1995), 여성의 역할변화를 수용하는 주거 및 도시계획, 여성의 삶과 공간환경, 서울, 한울아카데미

여성신문 2003년 2월 28일

엘리시스키(1994), 러시아; 세계혁명을 위한 건축, 서울, 세진사

이경희(1996), 주거문화와 여성, 한국여성학 12권 2호, 한국여성학회

이연숙(1996), 미래주택과 공유공간, 서울, 경춘사

Altman, I. and A. Churchman(1994), Women and Environment, Plenum

Duncan, James(1982), From Container of Women to Status Symbol, Housing and Identity, ed. by James Duncan, New York, Holmes and Meier, pp.36-59

Duncan, James(1985), The House as Symbol of Social Structure, Home Environments, ed. by Irwin Altman and C. M. Werner, New York, Plenum

- Gilroy, R. and R. Woods(1994), *Housing Women*, Routledge
- Hasell, M.J. and F.D. Peatross(1990), *Exploring Connections Between Women's Changing Roles and House Forms*, *Environment and Behavior*, 19. pp.588-613
- Hayden, D. (1984), *Redesigning the American Dream*, New York, Norton
- Loyd, Bonnie(1982), *Women, Home and Status*, *Housing and Identity*, ed. by James Duncan, New York, Holmes and Meier, pp.181-197
- McCamant. K. and C. Durrett(1994), *Cohousing*, Berkeley, Ten Speed Press
- Sapin, D.(1992), *Gendered Spaces*, The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Press
- Watson, Sophie(1986), *Women and Housing or Feminist Housing Analysis?*, *Housing Studies*, 1-1, pp. 1-7
- <http://www.sunoo.com/research/plan/2001-10-04.htm>
- http://wwwsearch.nso.go.kr/cgi-bin/search_SSDB/SearchR0.cgi